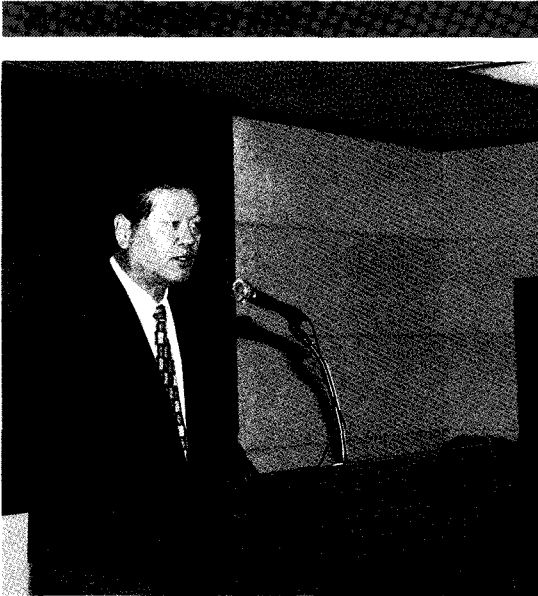




한국양회공업협회



제17대 한국양회공업협회장에 성신양회공업(주)의 대표이사 김관영 사장이 취임하였다.

제16대 박세윤회장에 이어 취임한 김관영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반세기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창외와 노력으로 회원사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전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6,000만톤에 달하는 세계적인 시멘트 생산대국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고 협회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기존수요의 방어와 수요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수요개발, 유통시설 및 수송수단의 확충과 업계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물류비 절감방안, 환경문제, 사업의 다각화 및 시멘트 품종의 다양화 등 업계의 당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협회 임직원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민으로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키워 소속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21세

기와 남북통일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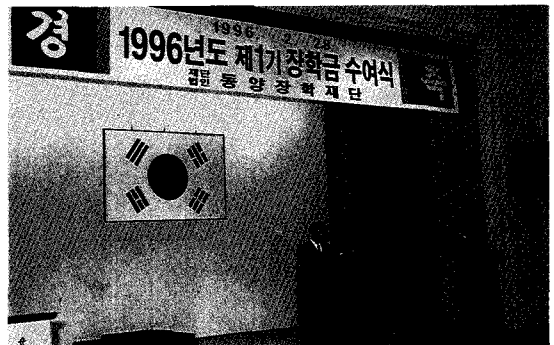
동양시멘트

95년도 '산학협동상' 수상

지난 12월 20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부와 산학연합동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정하다. '산학협동상' 시상식에서 동양시멘트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대기업부문 산학협동상을 수상했다.

'산학협동상'은 산학협동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개인이나 기업·단체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대학의 경쟁력확보와 유능한 인재양성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대학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동양장학재단 96년도 1기 장학금 수여식



동양장학재단의 96년도 제1기 장학금수여식이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동양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이석근 공장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원과 각계인사, 학부모 및 장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한국외대 4학년 김명희양을 비롯하여 일반 대학생 7명, 삼척산업대생 16명, 고등학생 59명, 그리

고 중학생 82명 등 총 1백6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건설가설재 판매·렌탈사업진출

지난 3월 7일 건설가설재 전문회사인 (주)의성실업과 최첨단 건설 가설재의 공동판매 협약 조인식을 갖고 건설 가설재 판매·렌탈사업에 진출하였다. 전국적인 영업망과 유통기지를 보유한 동양시멘트와 T.G.V(프랑스 고속전철) 가설재 전담업체인 프랑스 최고 가설전문업체 엔트레포세사와 '크랩'(자동체결장치)를 이용한 최첨단 가설재 국제 특허품에 대한 기술 제휴를 맺고 이제품을 생산하는 의성실업이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건설가설재 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TPM 경영간부 합숙교육



TPM활동의 정착화와 경영간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96년 삼척공장의 경영목표달성 및 각 부서의 목표설정을 위한 'TPM 경영간부 합숙교육'이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2차에 걸쳐 경영간부(대리이상 전원)를 대상으로 속초 설악프라자 웨밀리타운에서 실시되었다.

총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TPM 경영간부 합숙교육은 이석근 공장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JMAC(일본 능률협회 컨설팅)의 사이토 사장의 '21세기 기업

의 창조', 모리게니치(JMAC)의 'TPM활동과 간부의 역할', '삼척공장 TPM활동 활성화', 그리고 그룹토의 및 팀워크 육성활동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세의 날 재정경제위원장 표창장 수상

동양시멘트는 지난 3월 2일 제30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부총리겸 재정경제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수상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에 연구기금 4억원 기탁



쌍용양회는 95년 12월 1일 서울대에 '쌍용석좌교수 기금'이란 이름으로 연구기금 4억원을 전달하였다. 98년까지 4년동안 매년 1억원씩 지원될 이 연구기금이 적립됨으로써 교수의 연구조사 및 연구논문 발간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포틀랜드 1종 시멘트, 日건설성 품질심사증명획득

일본건설성이 93년부터 품질제조공정, 수송능력, 고객지향적 제도 등 전반적 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는 품질심사증명제도에서 쌍용양회 동해·북평공

장에서 생산하는 포틀랜드 1종 시멘트가 95년 12월 품질심사증명을 획득하였다.

중앙연구소,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쌍용양회 중앙연구소는 지난 1월 12일 공업진흥청이 엄격한 심사와 진단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국가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에 따라 시멘트 5개·콘크리트 2개 부문 등 총 7개 부문에서 국가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영월 신광산 터널 관통식 가져...

영월신광산건설사무소는 94년 10월에 착수해 약 16개월간의 공사끝에 최고 난공사 구간인 2천5백 54m의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관계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 1일 관통식을 가졌다.

공사가 내년 7월 완료되면 석회석 총3억톤에 매년 5백만톤씩 채광하여도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12월 28일 본사 18층 강당에서 창립3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본사 임직원 및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기념식에

서 허정섭 회장은 변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회사의 창업이념 만큼은 반드시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시멘트가 동업계에서는 최초로 민간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주는 제5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기업체로 선정되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의 산하단체인 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2월 15일 13개 부문에 걸쳐 제5회 경제정의 기업상 수상업체를 선정 발표했는데 한일시멘트가 1차금속 및 비금속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된 것이다.

경제정의 기업상이란 순수 민간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매년 기업체들의 경영실적 및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사회기여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선정하는 상이다.

한일시멘트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전재욱 공장장의 후임으로 정환진 전무를 제12대 단양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1월 3일 공장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단양 공장 강당에서 거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정환진 신임 공장장은 정리정돈 운동의 지속적인 시행과 인화 단결을 강조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무재해 100일을 달성하였다. 이번 무재해 기록은 95년 10월 6일부터 1월13일 까지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달성된 것으로 단양공장은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리정돈 운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통해 재해 예방에 남다른 노력을 전개해 왔다.

단양공장은 한편, 이번 기록을 자축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동업계에서는 아직 달성기록이 없는 노동부 인정 무재해 150만 시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현대시멘트 가족 한마음, 큰잔치 개최

현대시멘트는 지난 2월 13일 단양·영월공장 전직원과 가족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천시 문화회관 및 근로복지회관에서 현대시멘트 한마음 큰잔치를 열고 영원한 산업평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사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영원한 전진을 하자고 결의하고 2부행사로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김광용사장은 직원들의 애사심이 노사 화합을 이끌어온 최대 밑거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의 직장생활에 지원을 다할 것을 말하였고 심갑중 노조위원장은 최고의 직장을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단양, 연산 330만톤 생산라인 증설

성신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단양공장부지에 연산 330만톤규모의 시멘트 생산시설증설계획을 확정하고 96년초 증설공사에 착수키로 하였다. 최신식 공정건설을



목표로 내·외자 3,50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말 준공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현재 700만톤의 생산능력을 1천30만톤으로 확충케 되었으며, 충북 청원군 부강면에 건설 중인 180만톤 규모의 슬래그 시멘트공장을 포함하면 연간 1,200만톤이상의 시멘트생산설비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국내시멘트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 시대, 어학강좌 실시

성신양회 본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강의는 외국인강사를 초빙 A.B반으로 각각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1월 15일부터는 일본어 강의도 실시되고 있다.

